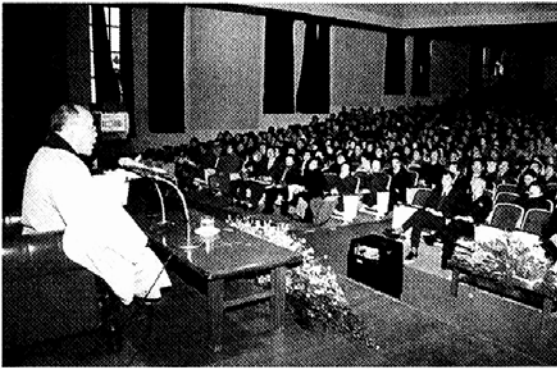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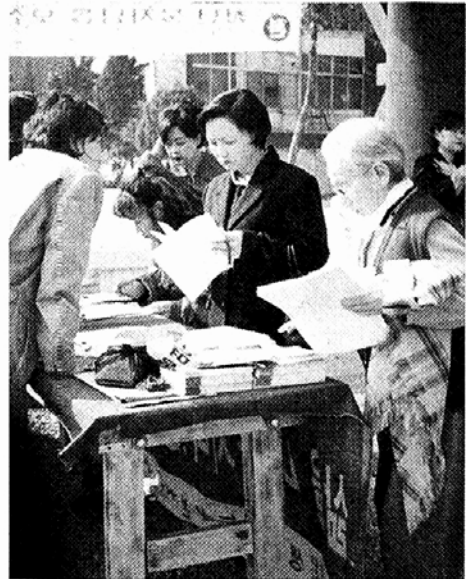


『삶을 나누시다 생명을 나누시다』 현대불교·생명나눔회 공동캠페인

장기기증은 만물과 화합하는 보살행



◇올해의 마지막 생명나눔 캠페인으로 열린 진각종 행사에는 4백여명의 불자들이 동참, 대미를 장식했다.

◇영화사 캠페인에서는 유기농산물 직판장도 함께 열어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11월 법회·진각종 총금강회·영화사

장기기증 99명·화장서약 5백29명 동참 밀교 대중강연 무공해 농산물 판매도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와 본사가 연중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 대법회가 11월 22일과 27일 서울 영화사와 진각종 신도회인 총금강회 서울지부 주최로 각각 개최됐다. 진각종 총금강회인 진선여자 중·고등학교 회당기념관에서 해정대정사(진각종 총학연구부장)의 밀교교리 대법회와 함께 열린 진각종 캠페인에는 많은

신도들이 동참해 올해 마지막 생명나눔 캠페인으로 펼쳐진 이날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캠페인에서는 문사국장 원명장사 등 43명이 장기기증을, 348명이 화장유언을 서약하는 등 모두 391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해정대정사는 법회에서 "부처님께서는 만물과 화합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면서 "장기기증이나 화장도 넓게 보

면 만물과 화합하는 것"이라며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보살법회와 함께 열린 영화사 캠페인에서는 인드라마생명공동체가 유기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고, 주지스님의 캠페인 독려속에 진행했다. 주지 일원스님은 법회에서 "생명나눔 운동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방생 불사이자 불살생계의 적극적인 실천"이라며 "불자로서 자신의 삶을 사회에 회향할 수 있는 생명나눔운동에 많은 불자들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사 캠페인에서는 34명이 장기기증, 181명이 화장유언에 서약하는 등 모두 215명의 불자가 동참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캠페인 동참 권유의 말

"삼라만상 모두 부처님 몸"

진각종 해정대정사

삼라만상은 모두 법신 부처님의 몸입니다. 이 땅에서 물·불·바람 어느 것 하나 부처님 몸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바로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아무렇게나 모여서 된 것은 아닙니다. 땅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소중한 땅의 일부분이 우리 몸을 형성한 것이요, 그래서 뼈와 살이 생겨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도 가장 청정한 물이 모여 피가 되고, 가장 강렬한 열을 내는 불의 중심이 모여 혈관을 피를 흐르게 하고 몸을 지탱케 하는 것입니다. 바람도 바람이 지니고 있는 근본 속성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장 좋은 요소들을 몸 속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자기 몸을 잃는 법인데, 어차피 한 생을 살다가



는 것이 인생인데 왜 만물과 화합하지 못하고 허탈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기증이나 사후 화장도 넓게 보면 만물과 화합하는 것이요, 우리의 몸을 싸아할 곳에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인연입니까. 나로 인해 다른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내 한 몸이 휴으로 돌아가 다시 다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발심하면 따를 수 있습니다. 모두들 발심해 보세요.

초발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불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불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불을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발심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생명나눔은 대승불교 실천"

영화사 주지 일원스님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의 모든 물질은 지(地)·수(水)·화(火)·풍(風)의 사대(四大)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육신도 사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죽은 후에는 다시 사대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나고 죽음이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四大)로 이루어졌고, 죽은 후에는 다시 지수화풍으로 분해될 뿐입니다. 죽어서 아무리 명당 자리



니는 흰 구름과 같이 무상한 것입니다. 그러도 우리는 그 갈도 앞에 매달려 욕심 내고 시기하고 어리석은 짐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 몸도 죽은 순간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헛된 욕심으로 극락세계에 가기를 바라는 것이 무명(無明)에 빠져있는 인간입니다.

생명나눔운동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방생 불사이자 불살생계의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즉 부처님 법을 현대에 맞게 실천하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대승불자의 실천지침인 육바라밀의 첫째인 보시를 통한 생명나눔은 불자로서 사회에 회향할 수 있는 운동임을 깨달아 불교의 대사회적 실천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10명도 동참

○...회당기념관에서 법회 안내를 맡았던 총금강회 서울지부신도 자원봉사자 10여명은 법회가 시작되고 법회장을 찾는 불자들의 발걸음 뜰 때마다 한꺼번에 서명대로 달려와 서명.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종단의 한 관계자는 "우리 불자들도 이젠 의식이 많이 달라졌단 말야"라며 흐뭇한 표정을 짓기도.

"생명사랑 취지 같네요"

○...영화사 캠페인에서는 인드라마생명공동체의 유기농산물 판매장터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이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자신들의 이념과 다를 바 없으며 유기농산물도 많이 이용하고,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해 눈길.

"사후화장 이젠 기본"

○...진각종 캠페인이 벌어진 진선여자 중·고에서는 이 학교 불교학생회 연합회 학생 20여명이 법회장소를 안내하며 생명나눔 캠페인에도 동참해달라는 애교적인 인사말을 건네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 이중 한 학생은 "사후에 화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신세대답해 "요즘 그거 기본이 아니에요?"라며 "신문에 이를 나오면 안돼요"라고 부끄러워 하기도.

대구 청주불자도 상경

○...그동안 불교방송을 통해 해정대정사의 밀교강좌가 계속된 탓인지 이날 법회에는 대구 청주 등 멀리서 온 불자들도 많았는데, 청주에서 조계종 사찰에 다닌다는 이운씨(43)는 사후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에 서약하면서 "평소

시도저도

장기기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다"며 "좋은 법문을 듣게 되고 뜻깊은 일에 동참했으니 보람있는 하루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자 나란히 장기기증

○...이날 생명나눔 캠페인에서는 울 캠페인을 통틀어 처음으로 엄마와 나이 어린 아들이 나란히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에 서약해 눈길. 서울 동작구에 산다는 이운씨(34)는 자신이 서명한 뒤에 이어 초등학교 2년생인 아들의 서명을 도왔다. 이씨는 "아이에게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이해를 구했다"며 "장기기증과 화장문화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덕목임을 일깨워주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짧은 이야기 · 긴 깨달음

작은 이야기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여기,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 제1권 * 행복의 문을 여는 이야기
- 제2권 * 사랑의 꽃을 피우는 이야기
- 제3권 * 수행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

행복·사랑·수행·지혜·죽음이라는

삶의 다섯 가지 주제들,

불경(佛經)과 고서(古書)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보배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새로이 조명해 봅니다.

'바리만 봐도 복이 오는' 아름답고 귀한 변상도(變相圖)와 함께

이야기 하나하나에 깃든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노라면,

'하니뿐인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미레 위음 200쪽 내외 각권 4,500원

오색시리즈 (전5권)

제4권(하얀색) 『지혜의 길로 이끄는 이야기』가 곧이어 출간됩니다

제5권(까만색) 『죽음의 재를 태우는 이야기』

법보시를 원하시면 출판사로 연락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한세

전화 : 02)3219-6441 팩스 : 02)653-4611

삼·부·농·산·은·유·기·제·배·약·초·만·울·생·산·하·고·있·습·니·다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황토삼백초 건조

삼백초의 놀라운 성분들

황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보노이드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액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大悟居士(김봉서 원장)

이런분들한테 좋습니다.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 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간이나 당뇨 혹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차나 술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97.11.6 / 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보닝아이드' 방영

삼부농신 SAM BU Fa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